제11회 자동차의날 인사말씀
2014. 6. 2(월) 11:30~12:00
인터컨티넨탈H 하모니볼룸(B1)

인 사 말 씀

산업통상자원부

윤 상 직 장 관

(1) 여는 인사말

먼저 진도 해상 여객선 사건과 관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제11회 자동차의 날」 자리를 마련하신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님,
신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님,

함께 하신 자동차산업인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 산업계를 더욱 빛내신 수상자 여러분!

* 자동차 날은 '99.5.12 자동차 수출누계 1천만대 달성을 기념하여 제정

오늘 자동차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자동차산업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뜻 깊은 이 자리,

그간 자동차 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상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2) 자동차산업의 역사와 위상

반세기 넘는 자동차산업 역사를 돌아보면
1955년 전후 폐허에서 미군 지프부품과
드럼통을 펴서 자동차를 만들던 수준에서

1976년, 에콰도르에 포니차 5대 첫 수출,
1999년 자동차의 날로 기념되는 해에 수출 누적 1천만대,

2013년말에는 국내외 생산 총 1억대를 달성한
자동차생산 5위의 자동차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국가주력산업으로
30만명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하고
수출 13%를 차지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 자동차산업 고용 30만명은 제조업의 10.9%('12년)를 차지하고,
  수출은 '13년 총 5,596억불중 728억불로 13%를 차지함

이는 그 동안 생산현장과 기술개발에
쉼없이 달려 온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3) 자동차산업 정책 방향

우리 자동차산업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신차개발 등 꾸준한 R&D투자 기반위에

많은 국가들과 체결한 FTA 효과를 더해져
최근 자동차 수출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4월 자동차산업 수출은 사상 최대인 71.7억불 달성
* '14. 1~4월간 생산 159만대(전년 동기대비 5.9%↑), 수출 109만대(4.2%↑)
  수출액 174억불(8.9%↑), 내수 53만대(8.0%↑)

산업과 통상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나라와 FTA 협상 진행중이며
이를 통해 우리 자동차시장을
全세계로 넓히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자동차업계가 산업혁신 3.0등
대중소 상생협력에 적극 동참해주신 것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新동반성장 정책('14~'16)'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확보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협력범위를 2-3차업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대한
정부의 자동차부문 R&D 투자를 더욱 강화하여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부품중심의 新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IT와 융합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 마무리 인사

자동차산업계 관계자 여러분 !

자동차산업과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미래에 대응한 적극적인 투자,
全세계를 향한 시장 개척,
성과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문화 정착 등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동차산업 발전과 도약을 함께 일구어 갑시다.
감사드립니다. <끝>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